



海外食品業界 最近動向

金 濟 華

(調達廳 外資局)

○ 最近 日本의 食糧廳은 過剩米가 現在의 趨勢로 간다면 더욱 深刻해질 것으로 判斷 하고 쌀의 消費擴大策을 위해

(1) 食品開發推進事業을 推進 빵, 면類 등 에 대한 쌀混合의 製造技術을 開發하여

(2) 이러한 成果를 關聯食品業界에 開放 하고

(3) 學校給食用에 대해서 35%를 引下한 特別價格으로 販賣하고 있는 쌀을 前年度에 比해서 倍로 增加시키며 또한 學校給食用 設備의 助成도 大幅的으로 增加시키겠다는 內容이다.

政府의 保有在庫는 來年 가을에는 450萬톤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食糧廳은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 쌀의 在庫를 減少시킬 方針 이다.

食糧廳이 쌀을 利用한 새로운 食品開發에 着手할 方針을 決定한 것은 食品業界에 이에

대한 開發을 一任한다 할지라도

① 同業界는 中小企業이 많고 研究에 資金이나 時間을 割愛할 余裕가 없는 企業이 많고

② 技術開發에는 特許問題가 있기 때문에 一個社가 새로운 食品을 開發할지라도 普及의 一般化에 있어서는 어려운 問題 등이 있기 때문이다.

食糧廳은 昨年度 부터 企業이 쌀을 利用한 新製品開發에 着手할 境遇에는 試驗用 쌀을 1,000톤 範圍內에서 無償으로 供給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業界內部에서도 쌀가루를 混入한 빵이나 면類의 試作을 推進하고 있으며 一部는 一般에게도 販賣하고 있다.

한편 食糧廳에서는 來年度에도 계속 1,000톤의 試驗用 쌀을 無償으로 供給함과 同時에 農林省의 試驗研究機關이나 民間企業에 대한 委託을 통하여 스스로 新製品開發에 着手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上記 消費擴大策 이외에

① 學校給食用으로 販賣하고 있는 쌀을 來年度에는 今年度の 22,000톤에 비해 2배인 45,000톤으로 增加시키며

② 給食에 있어서 必要한 備品과 炊飯設備에 대한 助成을 大幅的으로 增加시키며

③ 消費者에 대한 PR를 強化하는 등 對策을 實施할 計劃이다.

農林省의 調査에 의하면 今年度の 水稻의 試算收穫量은 1,293萬톤으로 政府의 當初豫想量(2,110萬톤)에 비해서 80萬톤 以上을 上廻하는 大豊作이 될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나 一部에서는 쌀의 消費는 減少 傾向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需給의 不均衡으로 大量의 古米(政府保有在庫)가 發生하고 있다.

農林省에 의하면 今年 10月 現在, 古米는 340萬톤, 來年 10月末에는 450萬톤에 달할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따라서 過剩處理問題가 深刻했던 1969年度의 550萬톤의 水準에 가까운 量이다.

食糧廳에서는 來年度부터 年間 170萬톤에 달하는 大幅的인 쌀生産調整策과 消費擴大策을 推進하는 兩面作戰으로 이러한 狀況을 打開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쌀消費擴大策에 따른 食品業界의 動向을 보면 미묘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즉, 쌀과 小麥을 둘러싼 論爭이다.

過剩米에 골치를 앓고 있는 食糧廳은 쌀의 消費擴大를 위해서 小麥의 拂下量 抑制와 小麥粉에 米粉을 混入하도록 빵과 製粉業界 등에 強力히 要請하고 있으나 關聯業界는 이에 強力히 反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業界에는 小麥抑制의 影響이 나타나기 시작, 신타 마카로니(macaroni), 스파게티(spaghetti) 등의 輸

入이 急増하고 있다.

世界的인 小麥의 豊作으로 過剩在庫에 苦心하고 있는 美國 등의 壓力이 앞으로 無視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波紋은 다시 크게 擴大될 것 같다. 食糧廳의 混入政策에 最初로 反對하고 나선것은 麵類業界이다.

全國製麵協同組合聯合會, 日本麵類業組合聯合會, 全國乾麵協同組合聯合會 3個團體의 反對理由는 국수나 메밀국수속에 米粉을 混入하도록 하는 食糧廳의 方針은 製品의 品質低下와 價格上昇을 招來하기 때문에 消費를 減退시키며 中小零細業者의 經營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業界의 計算에 이하면 小麥粉 1kg의 價格은 120엔인데 반해서 標準價格米 1kg은 約 300엔이다.

小麥粉 1kg 대신에 米粉 1kg를 使用하면 小麥粉 100%의 製品에 비해 米粉을 섞은 小麥粉은 180엔이 비싸다는 것이다.

따라서 年間 10萬톤의 米粉을 小麥粉속에 混入하면 小麥粉製品은 全體로서 180億엔의 Cost up이 된다는 것이며 이는 最終的으로는 消費者에게 轉嫁된다는 것이다.

맛도 問題이려니와 小麥粉과 米粉의 粒子의 고르지 못함과 比重의 差異등도 問題이다.

1kg나 2kg의 少量의 小麥粉속에 넣는 다면 難點은 없으나 大量生産이 되면 輸送과, 生産面 등에서의 障害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一部 製粉業界에서 憂慮한 바와 같이 比重이나 粒子의 差異로 인한 輸送時의 振動, 生産過程에서의 믹싱등에서 米粉과 小麥粉이 分離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米粉의 混入에 대한 慎重한 研究와 實驗을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理由를 바탕으로 食糧廳의 方針에

대해서 批判이 높고 反對運動은 빵과 비스킷 등 小麥粉加工業界에 까지 미치고 있다.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政府의 試算에 의하면 古米在庫는 來年 10月末에는 450萬톤에 달할 趨勢에 있기 때문에 過剩米處理가 深刻한 問題로 擡頭될것으로 생각 되며 또한 減産政策을 順調롭게 推進하기 위해서도 小麥粉業界가 10萬톤의 米粉을 混入하여 쌀消費擴大에 協力姿勢를 보일 必要가 있다.

過剩米를 保有하고 있는데 반해서 小麥自給率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쌀이 남아 도는데 小麥을 購買할 必要는 없지 않느냐는 意見이 나올수 있는 것도 當然하다.

그러나 日本에서 生産할 수 있는 小麥은 大部分 빵 등의 製造에는 使用되지 않는 薄力系이다.

戰後食糧不足期에는 美國의 小麥과 脫脂粉乳로 一部를 充當해 왔으며, 그후 食生活의 洋風化로 戰前과 戰後는 日本人의 食卓은 變化하였다.

戰前に 비해 1人當 쌀消費量이 大幅으로 減少된것도 無理는 아니다.

原料인 小麥不足으로 操業度는 確實히 낮아지고 있는데 稼動中止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크는 크다.

製粉會社의 操業率은 小麥不足으로 每年低下하고 있다.

특 maker인 日清製粉의 경우, 1975年度의 75.8% (25日 操業의 生産能力을 100)이었는데 1976年度에는 71.1%로 激減되었으며 今年에는 또 다시 減少될것이 確實視되고 있다.

即席라면業界중에서도 이미 操業中止의 企業이 나타나고 있다.

大 maker인 日清食品과 山陽食品은 9月과 10월에 小麥粉不足으로 1~2日間 一部工場의

生産을 中止한 바 있다.

政府가 製粉業界에 販賣한 主食用小麥의 販賣實績을 보면 1975年度에는 435萬 3,000톤으로 前年度에 比해서 8.7%가 增加하였는데, 1976年度에는 425萬 5,000톤으로 3.4%가 減少하였으며 今年度の 展望은 416萬 3,000톤으로 1%가 減少할것으로 보고 있다.

業界의 不滿은 量的 問題만이 아니라 小麥의 國際時勢에 比해서 日本國內에서의 價格은 3배가까히 높다는 것인데 이는 食糧管理制度로 인해 政府가 統制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際時勢의 低價安定으로 大幅의인 差益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의 英貨高騰으로 政府는 다시 600億에 以上の 利益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食糧廳은 消費者麥價(政府의 小麥賣渡價格)을 引上할 構想을 가지고 있으며 分期別拂下方法을 10月부터는 變更하였는데 이는 每年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서 消費者麥價의 引上에 따른 假需要를 抑制하기 위한 豫防措置이다.

業界에서는 이번에도 價格이 引上될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小麥의 國際價格과 國內價格의 差異 때문에 마카로니, 스파게티 등 小麥製品의 輸入의 急増현상을 招來하고 있는데 今年 8月까지의 마카로니, 스파게티의 輸入量은 前年同期에 比해 거의 2~3배에 달하고 있으며 輸入關稅가 35~40%이지만 더욱 增加하고 있다.

또한 消費者麥價가 引上되면 비스킷트를 비롯한 小麥粉製品은 더욱 國際競爭力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小麥은 最近 1,2年間에 世界的인 大豊作으로 美國에서는 800萬톤의 在庫를 保有하고 있으며 貯藏사이로가 不足하여 道路에까지 山積되고 있다고 한다.

日本이 이러한 國際情勢와 동떨어진 小麥政策을 취한다면 美國을 비롯한 캐나다 濠州의 小麥輸出國들의 批判의 對象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美國은 日本에 대해서 小麥備蓄을 要求하고 있는 외에도 小麥拂下量의 抑制에 關係 重大한 關心을 보이기 始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커피業界

家庭用커피분은 1960年代 後半부터이다.

커피의 主産國인 브라질이 75年 7月の 霜害로 커피의 國際時勢는 폭등 현상을 보였으나 約 2年이 經過한 오늘날에는 브라질의 增産策으로 커피의 國際時勢는 계속 下落, 來年에도 家庭用 커피의 價格은 引下될 可能性이 엿보이고 있다.

1975年 7月 브라질에 20年來의 大規模의 霜害로 主要生産州인 파라나州는 커피나무가 거의 全滅하였다고 한다.

브라질은 世界의 커피生産의 約 30%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大國이다.

그러나 75년의 霜害로 인해 翌年 76年の 生産量은 半으로 減退됨에 따라 그후, 國際時勢는 上昇一路로 치솟았으며 國際時勢의 指標인 뉴욕時勢는 霜害前에는 1파운드당 ￦60-￦70였으나 1976年 2月에는 \$1線으로 上昇하였으며 年末에는 \$2, 今年 3月에는 \$3까지 上昇하였다.

家庭用 커피도 海外價格上昇에 따라 價格이 因 따라 上昇하였다.

그 當時 小賣店價格이 kg당 1,700엔程度하던 것이 75年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 2,200엔, 76年の 여름에는 3,000엔, 今年 봄에는 4,000엔으로 2배반 가까이 上昇하였다.

小賣價格이 이와 같이 大幅引上됨에 따라 家庭用커피의 消費增加率도 鈍化되었다.

長期에 걸친 不況의 影響도 있었으나 小賣價格의 上昇으로 購買層이 減少된 것이다.

今年 3月の 뉴욕時勢는 \$3.36로 最高價格을 記錄했으나 當時 時點에서는 上昇할 餘地가 있다는 意見이 支配的이었다.

이 때문에 商社를 비롯하여 代理店들은 積極的으로 買入, 一部商人은 年內使用分을 確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國際時勢가 下落한 것은 高價로 인한 需要減退때문이다.

最大의 消費國인 美國의 需要는 前年度에 비해 20%는 減少되었다고 한다.

한편, 昨年에 크게 減少된 브라질의 生産量이 커피나무의 植替로 回復되고 있으며 生産量이 大幅減退한 昨年度에 比해서 2倍以上으로 增加된 것도 下落에 聯關되고 있다.

이때문에 뉴욕時勢는 現在 約 \$2의 水準을 維持하고 있는데 이는 今年봄의 時勢에 比해서 約 40%가 下落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展望도 需要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價格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등 生産國은 아프리카, 中南美의 地域別로 生産國會議을 開催하여 價格下落 防止對策을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今年에 增産이 된다 할지라도 在庫가 적기 때문에 現在 最低輸出價格을 3弗20센트 뉴욕時勢보다 60%가 높은 水準에 두고 이 價格을 引下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第2의 生産國인 콜롬비아는 最低輸出價格을 뉴욕時勢水準으로 引下하였으며 엘살바돌 등 中美諸國도 뉴욕時勢水準으로 販賣할 意向을 보이고 있어 生産國의 손발이 잘 맞지 않고 있어 이도 앞으로의 價格下落의 要困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통조림業界

○ 水産통조림중에서 輸出實績특인 고등어 통조림이 昨年의 비울빈의 輸入規制와 200해리 問題로 인한 魚價高騰豫想으로 價格競爭力의 低下를 우려하고 있다.

輸出價格의 上昇으로 去來減少의 움직임도 一部에서 表面化되고 있으며 昨년에 比해서 20%程度가 減少될 展望이 보이고 있다.

昨年度の 輸出量은 約 16만 7,000톤으로 前年度에 比해서 14%가 減少하였다. 昨年 2월에 덤핑輸出을 理由로 信用狀發給을 中止하자이에 對應하여 日本側은 輸出先 調整에 着手한 것이 輸出 減少의 主因이었다.

昨年度の 비울빈에 대한 輸出規模 30,000톤에 比해서 實績은 約 21,000톤에 그쳤다.

今年度の 輸入規模를 비울빈側은 昨年과 같이 30,000톤으로 設定하였으며, 日本側은 5月末까지 約 8,500톤을 契約하였다.

비울빈市場에는 少量이지만 칠레의 정어리 통조림이 나들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파푸아뉴기니아에는 需要減退로 인한 在庫增加때문에 最近 2個月間 정도 輸出契約이 中止狀態에 빠지는 등 價格上昇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연어통조림업계도 苦境에 直面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日蘇漁業交涉(연어, 송어)에서 漁獲割當量의 減少와 原料價格의 高騰으로 大幅減産을 면치 못할 것 같다.

水産통조림의 日本國內販賣額은 最近 數年間 沈滯로 인해 750~800億圓(maker 出荷베이스) 水準이다. 특 地位를 다랑어에 침식당했지마는 全體의 10%, 約 90億엔(昨年推定)을 販賣하여 왔다.

數量的으로는 다랑어의 約 350萬箱子, 고등

어의 約 300萬箱子에 이어 3位(約 50萬箱子)를 차지하였으나 今年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日蘇間의 연어·송어漁業交涉에서 漁獲量의 減少와 原料確保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難産끝에 決定된 今年度の 漁獲割當量은 62,000톤이다.

最高水準을 記錄했던 1973년에 比하면 29,000톤이 減少된 것이다.

昨年度の 年間生産量 約 90萬箱子로 處理한 原料는 約 13,000톤이다.

輸出用을 包含해도 30,000톤이다. 今年度에는 漁獲量의 減少로 鹽藏, 冷凍物로 轉換할 것으로 豫想된다.

연어통조림은 例年 같으면 10月末에는 거의 全量의 輸出契約이 締結되었으나 그러나 今年에는 濠州에 95,000箱子, 유럽에 11,000箱子의 契約이 締結된데 不過하여 輸出計劃의 60萬箱子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昨年度에는 150萬箱子를 輸出하였으나 今年에는 魚價의 高騰과 美國, 캐나다의 豐漁와 円貨高騰으로 輸出에 큰 支障을 招來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파인에플통조림은 오키나와에서 6月下旬부터 生産하고 있는데 今年에는 原料의 減産으로 인한 原料價格의 上昇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今年度の 오키나와의 生産量은 昨年度 生産量에 比해서 15%程度가 下廻하는 116萬箱子程度에 그칠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975年度の 大幅의인 増産으로 인한 供給過剩이 産地의 生産意欲을 減退시킨 影響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原料價格도 急上昇할 것으로 보고 있다.

昨年度에 있어서 原料價格은 製造業者 倉庫 渡價格으로 kg當 35.50円 이었으나 今年에는 이 보다 23%가 높은 43.50円으로 낙찰될 공산이 길다.

한편 77年度 上半期의 輸入規模는 75萬箱子로 前年 同期에 비해 40%가 增加하였으나 輸入品이나 오기나와產이 前年度 移越品이 大部分 없기 때문에 오기나와產의 出廻減少가 豫想되므로 物量이 남아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需要는 石油波動 이후 沈滯되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年間 250—260萬箱子는 固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下半期의 輸入規模를 50萬箱子로 假定하면 總供給量은 236萬箱子로 需要에 比해서 14—24萬箱子가 不足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 日本外換黑字로 인한 円貨高騰으로 통조림業界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현상이 擡頭되고 있다.

戰後, 貴重한 外貨를 獲得해 온 通조림產業에도 円貨의 強勢로 인한 波紋이 밀어 닥치고 있다.

특히 輸出比率이 20%를 넘는 水産通조림이나 菓通조림 業界 등에서는 業界의 存續에 關係되는 큰 問題로서 對應策에 골치를 앓고 있다.

菓通조림 業界에서는 昨年度의 輸出이 原料價 上昇으로 目標인 350萬箱子를 達成할 수가 없기 때문에 今年度의 輸出計劃은 320萬箱子로 下向修正하였으나 輸出契約이 始作되기전에 円貨가 急騰하고 있기 때문에 赤字를 覺悟하고 輸出하지 않으면 아니될 立場에 있는것 같다.

스페인인 數年前부터 菓通조림의 輸出에 力點을 두어 왔기 때문에 日本製品은 西獨을 中

心으로 유럽地域에 主力을 기울이고 있는 實情이다.

이 때문에 円貨가 高騰한다 할지라도 安易하게 輸出價格을 引上하면 西獨市場마저 빼앗길 可能性이 있어 國內市場用으로 輸出用을 돌린다면 國內市場이 混亂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今年에는 菓의 豊作으로 저렴한 原料를 使用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는 業界도 円貨의 高騰으로 10億円정도의 換差損이 發生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고 한다.

製菓業界

世界貿易의 擴大를 目標로 하는 東京라운드(多角的 貿易交渉)의 움직임이 活發해지고 있는데 製菓業界는 이 東京라운드의 一舉手一投足에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다.

東京라운드에서 菓子 輸入關稅가 引下된다면 莫甚한 打擊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業界의 見解이다.

東京라운드는 世界의 貿易을 擴大하기 위해 關稅를 引下하고 關稅以外的 貿易障害(非關稅障壁)를 除去하기 위한 交渉이다. 73년의 宣言으로서 갓트(關稅貿易一般協定)를 무대로 交渉이 始作되었다. 그 후 石油波動과 歐美의 國內事情등으로 交渉을 遲延되었으나 今年 7月 美國과 EC가 合意, 東京라운드는 급뺏치로 움직이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스케줄을 보면 ① 工業品의 關稅引下方式에 있어서는 10月 1日까지 合意하며 ② 非關稅障壁의 輕減에 대해서 各國의 要求를 11月 1日까지 提出하며 ③ 東京라운드의 妥結에 따라 必要하게 될 原案을 各國이 12月 15日까지 提出하며 ④ 來年 1月 15日까지 工業製品의 品目別 關稅引下幅을 各國이 提示하는

4段階이며 東京라운드에서 日本의 工業製品, 農産物 등이 影響을 받을 것만은 確實하다.

그중에서도 製菓業界는 關稅引下로 인한 輸入菓子の 急増과 높은 原料의 高騰의 2重苦의 影響을 받을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東京라운드에 대한 關心도 他業界以上으로 強力한 것은 當然하다

日本의 菓子の 現行關稅率은 35~40%로 歐美의 約 3倍에 달하고 있는데 昨年에 EC가 비스켓트, 초코렛 등의 關稅引下와 輸入擴大를 強力하게 日本에게 要求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東京라운드에서는 最終적으로 EC案에서 11.50-12.69%, 美國案 14.0-16.0%, 日本案 14.0-15.5%로 引下할 것을 檢討하기로 하였다.

이만큼 關稅가 引下되면 製菓業界의 立場은 困難하게 되는데 昨年度の 輸入초코렛 平均價格(CIF價格)은 1kg當 871円에 比해서 日本國產品은 1,506엔으로 CIF價格에 35~40%의 關稅를 加해도 國產品보다 싸다는 것이다.

關稅가 15.6%가 되면 于先 價格競爭면에서는 無理하다는 것이다.

한편, 輸入菓子の 편이 왜 싸냐하면 日本의 菓子原料의 價格은 國內農産物保護를 위해 歐美에 比해서 거의 倍에 가깝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砂糖경우 日本의 1kg當 186엔에 比해서, 美國은 約 100엔, 英國은 112엔, 佛란서는 109엔이다.

버터는 日本이 1,250엔에 比해서 美國은 600엔, 英國은 533엔, 西獨은 924엔으로 거의 半價格에 가까운 값이다.

그러나 歐美의 菓子 maker들은 專業이 많다.

日本과 같이 초코렛에서 비스켓트에 이르기 까지 多種多樣한 製品을 生産하는 곳은 없

다.

그만큼 大量生産에 의한 合理化, cost down 이 推進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시, 스칼 등 歐美 一流초코렛 maker의 生産量은 一社만도 日本의 總生産量에 相當할 정도이다.

菓子 原料品 價格의 國際比較 (單位: kg円)

	美國	英國	西獨	佛란서	佛란	日本
砂糖	99-101	112	—	109	—	186
全脂粉乳	500	387	595	477	583	784
脫脂粉乳	406	256	373	307	402	515
버터	600	533	924	766	976	1,254
물엿	68	72	—	98	—	104
澱粉	47	72-75	93	—	—	130
小麥粉	54	56	71	—	—	112

其他

美食品業界는 ITT·콘티넨탈·베이킹社가 最近販賣開始한 “구루메”食品의 新容器를 둘러싸고 크게 動員을 보이기 始作하고 있다.

레틀트·파우치가 開發된 것은 1957年 美陸軍이 가볍고 열기 쉽고, 金屬罐에 代替하기 위해 歩兵用配給食容器로서 開發, 實用化했다.

內側은 3層으로 라미네티된 두꺼운 폴리프로피렌, 外側에는 알미늄박과 폴리에스테를 발라 있으며 食品加工工場에서는 이 파우치에 食品을 넣어 통조림과 마찬가지로 調理한다.

金屬罐보다 폴리프로피렌의 라미네티의 편이 열의 傳導性이 優秀하기 때문에 調理에 所要되는 時間은 60%程度 短縮된다.

따라서 통조림食品의 缺點인 過剩調理를 피할수 있으며 맛에 있어서도 훨씬 優秀하며 冷凍食品에 가까운 맛을 지닐수가 있다.

美國食品業界가 이 새로운 容器를 開發에 投資한 資金은 約 1,500萬弗이며 別途로 美陸軍도 400萬弗을 投資하였다.